수료생만 3천명…지역 산악인 요람

■광주·전남 등산학교 개교 30돌

지난 1981년 지리산 제석봉 기슭에 개설된 광주·전남 등산학교 동계반에 참가한 교육생들이 설상 훈련을 하고 있다. 〈전남대 산악회 제공〉

'광주·전남 알피니스트의 산실'인 광주·전남 등산학교가 개교 30돌을 맞았다.

광주·전남등산학교는 지난 1979년 8월 한국등산학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리산 피아골에 개설된 '제1회 산간학교'가 그 효시로 하계 정규반과 암벽반, 동계 빙벽반을 매년 운영, 새내기 산악인들을 양성해왔다. 지금까지 이 학교를 거쳐간 수료생만 3천여명. 이 가운데는 50여명의 히말라야 8,000m급 등정자와 거벽 등반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지난 2005년 길이 4,500m의 거벽 '루팔벽'에 올라서 세계 산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낭가파르밧(8,125m) 루팔대장벽 원정대'(대장 이성원)와 2000년 세계 최초로 8명의 등정자를 한꺼번에 배출한 '한국K2(8,611m) 원정대' 도 광주·전남 등산학교 출신들이 주역이었다.

히말라야 8,000m급 7개 봉을 오른 나관주 (주)오지로투어 대표,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8,848m)와 로체(8,516m) 봉을 연속 등정한 김미곤(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씨, 지난 2일 남극대륙 빈슨 매시프 등정으로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한 김홍빈(에코로바 홍보이사)씨 등은 지금도 왕성한 등반활동을 펼치고 있다.

'루팔벽·한국 K2 원정대' 주역으로

학교 운영 주체는 광주시·전남도 산악연맹의 산하 단체인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연맹측은 매년 여름 정규반과 암벽반 과정을 개설, 일반 등산 이론 및 실기 교육을 통해 산악인 정신을 배양하고, 겨울철에는 설악산과 한라산, 지리산 등지에서 빙벽반을 운영해왔다. 지난 2006년에는 27년만에 처음으로 금강산 일원 빙설벽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빙벽교실을 여는 등 명실공히 지역 산악인 양성소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산간학교에서 광주등산학교로 이름이 바뀐 것은 지난 1984년. 정순택 전 교장(목포대 식품공학과 교수)은 "당시 산간학교는 선배의 얼굴을 익히고 산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정도였지만 참가자들의 열정은 대단했다"고 회고했다.

광주·전남 최초의 8,000m(1988년 로체)봉 등정자인 임형칠 광주·전남 등산학교 명예교장(광주시산악연맹 부회장)은 "그동안 등반 장비와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고 등산 인구도 크게 늘었지만 전문 등반을 하는 사람은 되레 줄었다"며 "도전 의식이 그만큼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임 부회장은 "최근 등산학교 출신들이 높이 위주의 등정(登頂)주의에서 탈피해 난이도 중심의 등로(登路)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 한국 산악운동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산악인 양성소로서 전국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온 광주·전남 등산학교는 서른번째 동계반을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충북 영동 송천빙장과 설악산 일원에 개설한다.

교육 내용은 설·빙벽장비, 막영법, 눈사태 대응요령, 러셀, 안자일렌, 설벽등반기술, 프랑스식 등반기술, 확보법, 장비사용법 등으로 이론과 실기 교육을 병행한다. 일반과정을 수료한 산악인들을 위한 지도자 과정도 별도로 개설된다.

내달 1일 설악산 등서 30번째 개설

연맹측은 특히 30회째를 맞아 대학 산악부와 일반 산악회 회원은 물론 등산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에게 문호를 개방키로 하고 다음달 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7박8일간 필요한 장비와 식량을 준비해 다음달 1일 오후 2시까지 광주 무등경기장 내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사무실로 집결하면 된다. 입교비는 일반과정(학생) 8만원, 지도자과정 7만원, 일반인 10만원 등이며 문의와 접수는 광주시산악연맹(062-374-8848)으로 하면 된다.

박상수 교장은 "히말라야 8,000m급 등정자와 거벽 등반가 등 풍부한 실전 경험을 지닌 산악인들이 강사로 참여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전남도 생체협, 올 14개 대회 일정 확정

전남생활체육협의회(이하 도생체협)는 올해 14개 생활체육대회를 여수시·순천시 등 도내 9곳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도생체협에 따르면 4월 볼링(10~12일·강진군)·족구(4월중·곡성군)를 시작으로 5월 정구(2~3일·여수시)·게이트볼(8일·화순군)·패러글라이딩(17일·고흥군), 6월 축구(6~7일·강진군), 9월 탁구(5~6일·영광군)·배드민턴(12~13일·화순군)·체조(9월중·영광군), 10월 택견(10일·순천시)·동호인 교류사업(24~26일·해남군)·도민생활체전(25~27일·해남군)·바다낚시(10월중·여수시)·배구(10월중·해남군)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도 도생체협은 일정이 정해지는대로 한·중·일 생활체육 교류와 전남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전남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도 치를 계획이다.

한편 전국 1천800만 생활체육 동호인의 화합잔치인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은 5월 22일부터 사흘간 전북에서 열린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반드시 이란 잡는다" 이란 원정을 앞두고 축구대표팀이 소집된 28일 오전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도 파주NFC에서 훈련 도중 달리기로 몸을 풀고 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다음 달 11일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란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4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5경기만의 귀환' 박지성 평점 7

90분 풀타임 출전…팀 5-0 대승 이끌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박지성(28)이 다섯 경기 만에 출전해 상대 선수의 퇴장을 이끌어내며 대승의 발판을 놓았다.

김두현(27·웨스트브로미치 앨비언.이하 웨스트브롬)은 결장해 태극전사 간 맞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지성은 2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웨스트브로미치 호손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브롬과 2008-2009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었다.

지난 12일 프리미어리그 첼시와 홈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고 나서 다섯 경기 만의 출전. 박지성은 15일 위건과 정규리그부터 25일 토트넘과 FA컵 4라운드(32강)까지 4경기 연속 결장했다. 박지성은 최근 왼쪽 허벅지 근육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복귀전을 치러 몸 상태에 대한 주위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 줬다. 다음 달 11일 이란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원정경기를 치르는 한국 대표팀도 한 시름 놓았다.

영국 스포츠 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28일 전.후반 90분을 소화한 박지성에게 "계속 뛰었다(kept running)"는 설명과 함께 평점 7점을 줬다.

25일 챔피언십(2부 리그) 소속 번리와 FA컵 4라운드에서 프리킥으로 시즌 첫 골을 터트렸던 김두현은 교체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女체조 '조정순 체육상'

최우수단체 선정…태권도 금 황경선, 최우수선수에

광주체육고 여자체조팀이 광심여성체육진흥재단에서 선정하는 제12회 조정순 체육상 최우수단체의 영예를 안았다.

베이징올림픽 여자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황경선(한국체대)은 최우수선수로, 원주여고 역도팀 박미정 코치는 최우수지도자로 뽑혔다.

광주체육고 여자체조팀은 지난 2004년 전국체전부터 2008년 전국체전까지 여고부 단체종합 5연패, 전국종별선수권 3연패, 전국체고대항 5연패 등 최근 5년간 전국대회서 우승 16회로 약 115개의 메달(금 65, 은 25, 동 25)을 획득해 명실상부한 국내 체조 최강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개인부문에선 2학년 박은경 선수가 89회 전국체전 5관왕, 88회 전국체전 4관왕과 함께 종별선수권·체고대항·문화관광부장관기대회서 전관왕(6관왕)을 휩쓸어 체육상 수상에 크게 기여했다.

조정순 체육상은 대한정구협회 회장과 국제정구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1994년 타계한 조정순 여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매년 여성체육인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초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열린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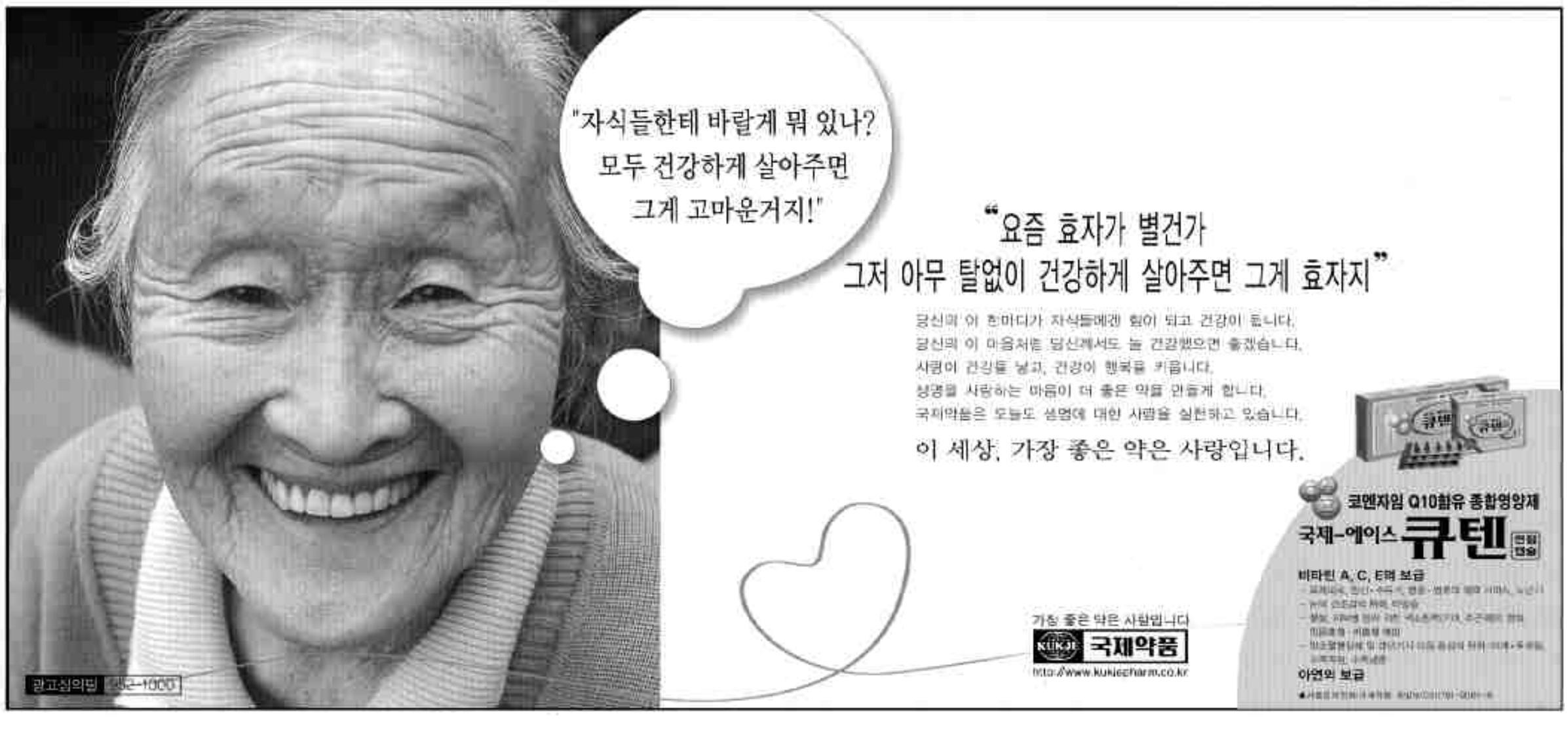
스포츠중계

29일 (목)

▲V리그 〈현대건설 : 흥국생명〉(16 : 40), 〈대한항공 : 현대캐피탈〉(18 : 40·KBS N SPORTS)

▲여자프로농구 〈금호생명 : 삼성생명〉(16 : 50·SBS스포츠)

▲프로농구 〈KT&G : SK〉(18 : 50·SBS스포츠), 〈동부 : 삼성〉(18 : 45·XPORTS)

▲NBA 〈덴버 : 뉴올리언스〉(10 : 00·SBS스포츠)

▲호주 오픈 테니스 여자단식 준결승 2경기(11 : 00), 남자준결승1 (17 : 30·MBC ESPN)